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22호 현대불교
2007년 4월 4일(음력 2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여러분 각자 한 몸 자체가 바로 법당 인줄 알아야

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 법당 한 자리지만 이 한자리가 우주 삼라만상의 한자리인 것입니다. 한자리란 그렇게 가벼운 한자리가 아닙니다. 한생각도 가벼운 한생각이 아닙니다.

역대로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겠지만,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발견해서서 우리들한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서 지금까지, 아니 후대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주춧돌 삼고 또는 거름을 삼아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설법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 이 자리가 바로 한도량입니다. 대외적으로 따진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아래의 집이면서 또 여러분 각자 한 몸 자체가 바로 법당인 줄 알아야 합니다.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선도 아닙니다. 단지

교할 때 어저께 부처와 오늘 부처가 틀어 아니며, 그럼으로써 여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는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한다면 그대로가 부처님 밭이며 그대로가 가르침이며 그대로가 행이며 그대로가 여여한 줄을 알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게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을 해야만 하는, 억지로라도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무로 비유를 가끔 합니다. 어저께 콩씨를 오늘 아침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나더라. 그런데 그 콩나무는 어저께 콩씨가 자기 몸으로 화(化)해진 것을 모르고 어저께 콩씨를 찾느라고 바깥에서 애쓰더라. 오늘의 콩나무로 화한 콩나무는 그 콩나무에 바로 콩이 열렸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그 콩씨를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

그대로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꼭 알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십시오. 시대 돌아가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면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각자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생명선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 음파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빛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광명선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탐자기의 조절이라든가 무전기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자연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물질과학이니 문명이니 문화니 철학이니 하는 모든 과목도 바로 인간에게서 주어지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질과학으로서 문명으로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기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리드해나갈 수 있는,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만능적인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어저께 일을 알고 있던 작년 일을 알고 있고, 어디서 구경을 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와 같이 깨달은 사람들은 역시 앞 부처, 뒷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이름 아님이 없고 모두가 자비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의 자기 공에, 즉 말하자면 생명선 그 자체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보신(觀身)과 화신(化身) 또는 법신(法身) 부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로부터 이 육신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다 갖추어

서 있다는 것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물부처가 따로 있고 불부처가 따로 있고 흙부처가 따로 있고 바람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처님들의 이름 자체가 부처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잘나 잘나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님인 것이고 나중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데까지 도달해야만이 살아서 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 죽어서 열반을 한다면 그것은 더하고 탈함이 없기에 죽어서 열반을 한다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열 가지 물감 빛깔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도리를 아셔야 할 것

것은 나쁜 것대로 돌려서 놓는 것입니다. 굵은 게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망상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아서 돌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무(無)'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놉라, 공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꼭 거기에다가, 단연코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고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흥겨운 거든 기쁜 거든,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과가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선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일체 만법에 대한 모든 생활을 자기가 한 발 한 발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라는 착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四相), 즉 말하자면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 이런 것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에 대한 착, 또는 육근에 관한 착의 문제가 붙습니다.

사람이 아상만 떴다면 착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空)했는데 어찌 모든 것을 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아상과 집착과 삼독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공해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모두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허깨비 같은 몸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선과 더불어 거기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자체, 몸을 움직여질 수 있는 그 자체, 삼합(三合)이 공존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여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아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비

니다. 바로 자기가 움직여질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참 생명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선은 움직여지지 않지만 자기가 움직여지는 것은 바로 바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봉은 움직여지지 않듯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콩씨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또 안으로 굴러서 자기가 나침반을, 중도를 세워서 항상, 입으로 나쁜 말이 튀어 나오더라도 안으로 굴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인연을 맺고 또는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가 아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뜻을

사람이 아상만 떴다면 착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체 만법에 대한 모든 생활을

자기가 한발 한발 놓고 가는 것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를, 이름 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하나 삼합이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삼세심(三世心)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 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그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가 다 일임해서 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니까, 자기의 생명선을 못 믿는다면 말은 어떻게 하며 몸은 또 어떻게 움직여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기 생명선, 이름 해서 주인공인 참자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유생 무생과 더불어 생활하고 돌아가는 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거기에 다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가 놓으십시오.

사람이 아파서 놓는다 하면 반드시 거기서 의사가 돼줄 겁니다. 자기의 참자기는 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화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뜻입니다. 빛으로는 빛으로 응하고 음파로는 음파로 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든 걸 일임해서 놓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둔다면 바로 자기까지도 내공에 다 놔버리는 것입니다. 아가 말했듯이 아상을 갖지 말라. 왜? 열 가지 빛 중에 하나를 내가 내세워서 이게 빛이라고 내놓을 게 없는 도리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늙어서 호렸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또 남편을 만날 땐 부인으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애들을 만날 땐 어머니로서 생각날 것이고 또는 친구를 만났을 땐 친구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

22면으로 계속



천년 이상 사랑 받아 온 산티데바의 HAPPINESS LESSONS 행복수업

김영로 옮김 | 변형 신국판 양장본 | 272쪽 | 값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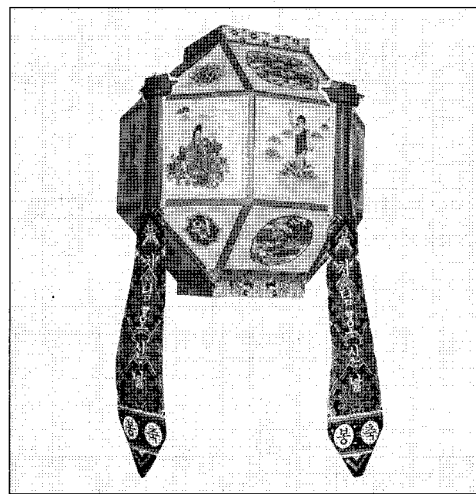
제1장 보리심의 공덕 | 제2장 악업정화 | 제3장 행복보림 일으키기 | 제4장 보리심 일으키기 | 제5장 지계와 정지
제6장 인욕바라밀(초월적 인내) | 제7장 정진바라밀(초월적 정진) | 제8장 선정바라밀(초월적 선정)
제9장 지혜바라밀(초월적 지혜) | 제10장 회향

『산티데바의 행복수업』은 천여 년 전에 인도의 수행자 산티데바(Shantideva)에 의해 보리수행(Bodhi-charyavatara)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나온 이래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과 행복으로 인도해온 참모로 훌륭한 행복교과서입니다.

산티데바(寂天)는 금강승을 수행하여 한 생애 동안에 최고의 행복,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울긴이 아찰라(不動) 김영로 님은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 영어 교육에 종사해오다(영어수혜 저자), 최근에 보살계와 탄트라계를 받고 금강승을 수행하면서, 영어로 나와 있는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옮겨 전하는 행복 메신저로서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165-14, 전화 (02)420-3200, http://www.bulkwang.or.kr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질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질이 하던 등제작이 '현편의 공정으로 이틀정도 및 스티로폼 등', 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준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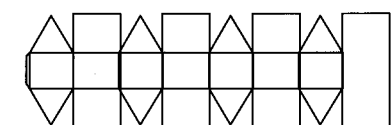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볼품의 의미와 종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풀조 및 인쇄까지 합치 방식)



현우기획

전화: (043)877-6464 팩스: (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 (주)국민퍼낸셜) ■ 농협 415051-51-000075 (예금주: (주)국민퍼낸셜)